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219>

JCCT 2022-1-24

일개 대학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of Nursing Students at one University

양혜경*

Hye Kyung Yang*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정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C지역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표준편차, t-test 와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전공만족도는 전공결정시기($F=4.127, P=.004$)에서, 자기존중감은 전공선택동기($F=7.384, P<.001$)에서, 직업가치관은 전공선택동기($F=5.023, P<.001$)와 가족 중 간호사의 유무($F=3.5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confirm the degree and correlation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work values of nursing students, and was attemp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nursing students' nursing educa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24 nursing students from one university in the c region. Data analysis was analyzed using SPSS 22.0 program with frequency and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major satisfaction at the time of major decision($F=4.127, P=.004$), self-esteem at the motivation for admission($F=7.384, P<.001$), and work value at the motivation for admission($F=5.023, P<.001$)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nurses in the family($F=3.501, P<.001$).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work valu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that can improve the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and job valu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Key words :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Nursing students

*정회원, 단국대학교 외래강사 (제1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28일, 수정완료일: 2022년 1월 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월 8일

Received: December 28, 2021 / Revised: January 1, 2022

Accepted: January 8, 2022

*Corresponding Author: joabada12@naver.com

Dept. of Nursing, Dankook Univ, Korea

1. 서 론

2015년 메르스와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경험하면서 국가차원에서 간호사를 의료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 등으로 간호사 인력의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심각한 청년 취업난과 함께 졸업 후 다른 전공보다 취업률이 비교적 높은 간호학과로의 입학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의 증가와[1] 의료인력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간호대학 입학 정원확대로 입학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지식과 고민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대학입학 후 자신의 기대가치에 따라 전공적응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간호 대학생들은 대학 입학과 함께 보건의료 전문인이 되기 위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임상실습, 국가고시 등의 부담을 경험하게 된다. 간호 대학생들의 대부분은 높은 취업률을 선호하여 간호대학 진학을 선택하였으나, 임상실습을 포함한 교과과정 등 전공과 적성의 불일치 등으로 심리적 갈등 및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학생들이 많다[3]. 이러한 전공 부적응은 자신이 기대하였던 전공과 대학생활의 차이로 인해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되며, 대학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생의 전공만족은 졸업 후 진로 선택 및 사회적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직업가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전공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은 졸업 후 간호사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해 혼란과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므로[4],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 및 졸업 후 진로결정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신의 적성과 성향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전공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향후 전공과 관련된 직무만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5].

간호 대학생은 실습 및 사회생활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인간관계를 접하게 된다. 사람들과 친밀하고 자기성장을 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요인으로 자기존중감이 중요하며, 자기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6].

간호대학생의 자기존중감은 졸업 후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변화와 적응에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성공적인 직장생활의 중요한 가치로 작용하게 된다[7]. 자기존중감은 의료인으로서 여러 상황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대처자원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간호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요인이다[8]. Lee[9]는 자기존중감은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가치를 부여하여 학업성취와 직업적 확신을 추구하게 된다고 하면서 전공만족도가 높아지게 되면 전공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어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고 성취감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대학생들은 대학의 교육과정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고려하게 되므로 대학에서의 전공은 향후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학 전공은 직무수행과정에 연결되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므로, 전공에 만족하게 되면 향후 자신의 전공분야로 진로를 결정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10]. 특히 간호 대학생은 대학생활 기간 동안 다양한 이론과 실습과정을 통해 직업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졸업 후 의료인으로서 인간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게 되므로 올바른 직업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11].

간호대학의 높은 취업률에 선호되어 전공을 선택했으나 돌봄에 대한 헌신과 전문적 지식, 대인관계능력 등이 부족하여 취업 후 직업적 압력과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만족스러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 자신이 맡은 직무 및 직업의 만족도는 개인의 삶의 수준에서는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국가차원에서는 의료인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간호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과 직업에 대한 기준이 일치하면 전공만족도는 높아지나[12],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전공에 대한 흥미를 잃고 졸업 후 직무수행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13]. 이렇듯 전공만족도와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의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과 임무를 갖추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므로 간호 대학생들의 자기존중감과 전공만족도, 직업가치관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진로태도성숙[14], 취업준비행동[15], 진로정체감[16], 전공몰입과[11]에 대한 연구로서, 주로 진학 또는 진로와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졌을 뿐 자기존중감과 상관성을 본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간호 대학생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교과과정과 졸업 후 다양한 대상자 및 보건의료인과 관계를 맺고, 간호현장

에서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게 되므로 여러상황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대처자원으로서의 자기존중감과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관계를 파악하여 간호교육 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정도 및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C 지역에 소재해 있는 일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G power program을 사용하여 선행연구[17]에 근거한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25, 검정력 0.95을 적용하여 202명이 산출되었다. 탈락율 10%를 적용하여 불성실한 6부의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4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표본의 크기를 충족하였다.

3. 연구 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은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입학동기, 전공결정시기, 가족 중 간호사 유무) 5문항과 전공만족도 18문항, 자기존중감 10문항, 직업가치관 7문항으로써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는 진로 또는 직업에 대해 자신의 전공을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18] 미국 일리노이대학이 개발한 학과평가 조사설문지((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과 Ha[19]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18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Mun 등[20]이 수정보완한 도구의 Cronbach's $\alpha = .92$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8$ 이었다.

2) 자기존중감

자기존중감이란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가치있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1]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22]가 개발한 도구를 Yang[23]이 번역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도구는 10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번역된 도구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2$ 이었다.

3)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이란 개인이 일을 할 때 얻고자 하는 산출물 또는 만족을 주는 요소를 말한다[24]. 본 연구에서는 An & Lee[25]가 개발한 도구를 Park & Lee[12]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도구는 총 7개문항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가치관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Park & Lee[12]가 수정보완한 도구의 Cronbach's $\alpha = .76$ 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71$ 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간호학과의 1, 2학년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7일부터 2020년 12월 13일까지 수집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게 Google의 온라인 서베이 방식을 이용하여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자료가 연구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과 무기명으로 진행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참여를 거부할 수 있음을 안내문으로 설명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5.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t-test 와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로 검증하였다. 각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198명(88.4%)이었고, 학년은 1학년이 117명(52.2%)으로 나타났다. 간호학과 선택동기는 높은 취업률이 78명(34.8%), 적성과 흥미 61명(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결정시기는 고교 3학년때가 103명(46.0%), 수능이후가 59명(26.3%)의 순이었고, 가족 중 간호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7명(12.1%)으로 나타났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24)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female	198(88.4)
	Male	26(11.6)
Academic grade	1	117(52.2)
	2	107(47.8)
Motive of application	High school grades consideration	14(6.3)
	High employment	78(34.8)
	Aptitudes and interests are beaten	61(27.2)
	Good social images	25(11.2)
	Recommendation by parent or teacher	47(21.0)
Time for selecting nursing	Before High school	11(4.9)
	1st~2nd grade of High school	51(22.8)
	3 rd grade of High school	103(46.0)
	Application period	59(26.3)
presence of a nurse in the family	Yes	27(12.1)
	No	203(87.9)

2.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정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을 측정하는 도구는 5점 척도로서 전공만족도는 평균 3.38±0.38점 있고, 자기존중감은 3.42±0.47점, 직업가치관은 3.26±0.66점으로 나타났다.

표 2.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수준
Table 2.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N=224)

	Min	Max	Mean±SD
Major Satisfaction	2.12	4.47	3.38(±0.38)
Self-esteem	2.36	5.0	3.42(±0.47)
Work values	2.27	5.0	3.26(±0.66)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Table 3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전공결정시기(F=4.127, P<.00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 보다 여학생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았고(F=2.926, P=.062), 전공 선택동기로 적성 및 흥미(F=.741, P=.549)일때, 가족 중 간호사가 있을 때(F=1.262 P=.214)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존중감은 전공 선택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F=7.384, P<.001). 직업가치관은 전공 선택동기(F=5.023, P<.001)와 가족 중 간호사의 유무(F=3.50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공만족도와 자기존중감(r=.172, P=.004), 전공만족도와 직업가치관(r=.274, P<.001), 자기존중감과 직업가치관(r=.282, P<.001)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정도를 파악하고, 각 관계를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간호교육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5점 만점 척도에서 모두 평균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평균은 3.38(±0.38)점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공만족도 연구도구와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Lee 등[17]의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가 3.12점이었고, Jeong 등[26]의 연구에서는 3.79(±.49)점으로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공과 직무가 일치하고 직업의 전문성을 가진 전공학과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로 나타난다는 Jang[27]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결과에서 전공만족도는 전공 결정시기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1~2학년 시기에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Table 3. The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female	3.67±0.41	2.926	.062	3.96±.45	1.103	.282	3.38±.56	1.788	.172
	Male	3.27±0.21			3.83±.53			3.27±.62		
Grade	1	3.41±0.39	2.734	.094	3.35±0.17	0.785	.431	3.33±.40	1.256	.224
	2	3.33±0.37			3.33±0.25			3.12±.47		
Motive of application	High school grades consideration	3.21±0.41	0.741	.549	3.52±.54	7.384	.000	3.64±0.33	5.023	.001
	High employment	3.47±0.42			3.91±.42	a>b,c,d c>a		3.94±0.43	b>a, b>d	
	Aptitudes and interests are beaten	3.56±0.48			4.10±.38		3.88±0.45			
	Good social images	3.32±0.26			3.57±.45		3.85±0.48			
	Recommendation by parent or teacher	3.38±0.33			3.77±.49		3.86±0.38			
Time for selecting nursing	Before High school	3.11±0.16	4.127	.004	3.40±0.23	2.023	.118	3.16±0.26	0.452	.794
	1st~2nd grade of High school	3.52±0.23	b>c		3.44±0.21			3.21±0.30		
	3 rd grade of High school	3.43±0.22			3.57±0.42			3.17±0.19		
	Application period	3.39±0.19			3.47±0.14			3.19±0.22		
presence of a nurse in the family	Yes	3.18±0.24	1.262	.214	3.22±0.23	0.711	.426	3.25±0.22	3.501	.001
	No	3.31±0.32			3.35±0.44			3.47±0.21		

표 4.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간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Division	Major Satisfaction	Self-esteem	Work values
	r(ρ)	r(ρ)	r(ρ)
Major Satisfaction	1		
Self-esteem	.172(.004)	1	
Work values	.274(<.001)	.282(<.001)	1

전공을 결정한 경우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간호 대학생에게서 전공만족도가 높았다고 보고한 Mun[20]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전공결정시기와 전공만족은 밀접하게 관련되어[28] 진로선택이 지연될수록 미성숙한 결정으로 전공만족도와 대학적응에서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Kim 등[29]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성별에 따른 전공만족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결과를 보였는데, Lee 등[17]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Mun 등[2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전공만족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반복연구 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자기존중감은 평균 3.42(±0.47)로 Kim

등[30]의 연구에서의 평균 3.89(±0.64)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존중감이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Jeong 등[26]과 Oh[3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Iacobucci[32]는 자기존중감이 높은 간호학생들은 간호사를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직업적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긍정적 자기존중감은 상대방과 긍정적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임상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33]. Jeong 등[34]은 자기존중감은 첫 직장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직업가치관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기존중감은 대학생 생활 적응뿐만 아니라 졸업 후 간호사로서 직무수행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자기존중감은 환자 간호의 질적인 측면과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생명을 다루는 긴장감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는 직업적

소진과도 관계되므로[35] 간호교육과정에서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은 평균 3.26 (± 0.66)이었는데, Jo[3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측정도구가 다르지만, 3.91 ± 0.48 점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 특성 중 직업가치관에서 가족 중 간호사의 유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족 중에 간호사가 있을 때 간호학과 학업과 생활에 만족하고 일반학생들에 비해 어려움을 더 잘 극복한다는 Kim 등[37]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전공 선택동기는 자기존중감 및 직업가치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기존중감과 전공만족도에서는 전공 선택동기로 적성과 흥미가 높게 나타났으나, 직업가치관에서는 적성과 흥미보다 취업률이 높아서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직업가치관이 전공 선택의 동기로 적성과 흥미와 관계가 있었다는 Jo 등[3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는 Lee[38]에 의하면 우리나라 대학생의 희망 직업 선택의 주된 결정요인으로는 돈과 안정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보고 하였고,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은 직업을 자아실현의 장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수단적 직업 가치관으로 보는 경향이[39] 더 높다고 하였다. 이것은 취업난이 심각한 현 시대를 살아가는 대학생의 직업에 대한 가치가 반영된 결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간호사는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이직율이 높은편으로 병원간호인력 실태조사[40]에 의하면 병원 간호사의 이직율은 15.4%로 그중 신규간호사의 이직율은 45.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간호학과를 지원할 때 전공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지 않은 채 취업의 용이성 또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 선택할 경우 학업뿐만 아니라 졸업 후 직업에 대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고 업무 능률 저하와 잦은 이직을 초래할 수 있다[41]. 이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환자 그리고 간호사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삶의 질, 정부의 의료인력 운영 측면에서 모두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적성과 소질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공을 선택할 때 도구적 수단보다 자기이해를 통한 진로결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42].

본 연구에서는 직업가치관이 전공만족도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Huh[43]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가치관과 전공만족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으며, 간호대학생들의 전공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간호 대학생들이 미래 의료인으로서 생명보호의 업무를 숭고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전공 교과내용에 흥미를 느끼고 가치 있는 학문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의 교육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직업가치관 및 전공만족도는 자기존중감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이 교과과정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에서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생활을 위해 관련 요인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고, 이를 통해 간호 대학생들의 간호교육 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의 정도 및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서, 간호대 학생의 간호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 모두 5점 척도에서 3점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전공결정시기($F=4.127, P=.004$)에서 조기에 전공을 결정할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존중감은 전공 선택동기에서($F=7.384,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업가치관은 전공 선택동기($F=5.023, P<.001$)와 가족 중 간호사의 유무($F=3.501, P<.0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은 유의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한다. 첫째,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 및 자기존중감, 직업가치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연구대상자를 일 지역의 간호대학에 한정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대상자를 확대

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직업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요인의 탐색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B. H. Son, Y. M. Kim, ,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3). 240-249. 2011.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Health and Medical Condition Survey. 2019.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1s.jsp?PAR_MENU_ID=03&MENU_ID=032901&page=1
- [3] J. A. Park,, E. K Lee.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tress coping styles on college adapt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7(3), 267-276. 2011.
- [4] M. J. Im. Social Welfare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Research on: Focusing on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Gangnam University. 2000.
- [5] J. H. Yang.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majors in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5.
- [6] H. S. Park. A study on self-concept and adaptation. *psychology research*, 5. 33-39. 1997.
- [7] Winters, N. C. Myers, K. & Proud, L. Ten-year review of ratiomg scales III : scale assessing suicidality, cognitive style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Amerrcan Academ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1(10), 1150-1181. 2002.
- [8] S, S, Hong, K i. K. Influencing Factors on Self Esteem in Adolescents. *Korean Acad Nurs*. Vol. 36. No. 1, pp.37-44. 2006.
- [9] H. I. Lee. Correlations among self-esteem, depression and academic achievement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2(1), 97-107. 2008.
- [10] J. S. Song.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major and job match Degree.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2008.
- [11] S. H. Sin, J. W. Lee, C. T. Kim, S. H. Sin. Relations among Ho University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choice, job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JKAIS*. 22(10), 95-107. 2021.
- [12] S. K. Park, H. S. Lee. Effect of job value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on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immersion-Focused on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hotel tourism. *NATR*. 12.1. 219-235. 2016.
- [13] K. M. Yang. Relationship among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JDC*. 15(12), 445-453. 2017.
- [14] S. Y. Lee, S. B. Je. The Effect of Career Values and Calling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1(5), 231-245. 2020.
- [15] S. O. Sin, Nursing students' Feelings of COVID-19, Work Values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259-268. 2020.
- [16] C. H. Kim, J, L, Kim.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belongi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work value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6(3), 259-268. 2020.
- [17] J. G. Lee, W. J. Kim. Effect of Nursing Students' Recovery Resilience and Personality Type on Major Satisfaction. *KAIS*. 22(6), 100-107. 2021.
- [18] H. S. Ha. A study on departmental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Seoul. 1999.
- [19] Kim, K. H., Ha, H. 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2000.
- [20] I. O. Mun, K. W. Le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Search Efficacy on Career Search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ursing Education*. 16(1). pp 83-91. 2010.
- [21] Taff, L. B. Self-esteem in later life: a nursing perspective. *Adv Nur Science*, 8(1). 77-84. 1985.
- [22] Rosenberg, M., Simon, R. G. Black and White self-esteem, the urban school child. Washington rose monograph series, 1-10. 1971.
- [23] Yang, H. J.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daily hassles and self-esteem on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2002.
- [24] Dawis, R. V, & Lofquist, L. A. A psychological theory of work adjustment: an individual-differences

- model and its application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84.
- [25]K. H. An, Y. H. Lee. A study on the types of professional values of college students. *business education research*, 17(1). 1-17. 1998.
- [26]M. H. Jeong, M. A. S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SNE*, 12(2), 170-177. 2006.
- [27]M. Y. Jang. Department satisfaction, attribution tendencies, and career decisions of college students level of relationship. Ewha Woma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Thesis, Seoul. 2005.
- [28]J. K. Tak, G. H. Lee.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occupational decision scales. *Digital Management Research*, 1(1). 167-180. 2001.
- [29]M. B. Kim, S. T. Mun. The cuning between the career decision level of college students and individual internal and external variables. *Career Education Research*, 1791. 92-105. 2004.
- [30]M. H. Kim, E. K. Baun. Factors Influencing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7(4). 137-145. 2021.
- [31]J. H. Oh.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College Life Adap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Content Studies* 14(10). 873-884. 2014.
- [32]T. A. Iacobucci, B. J. Daly, D. Lindell, and M. Q. Griffin, Professional values, self-esteem, and ethical confiden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Vol.20, No.4, pp.479-90, 2013.
- [33]Kendall, S., & Bloomfield, L.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efficacy.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1, 174-181. 2005.
- [34]Y. J. Jeong, J. S. Kwan. Factors influencing young people's self-esteem and job values on their first job satisfaction. *AJMAHS*. 9(4), 717-724.2019.
- [35]Shin MH, Shin SR. Predictors of burnout among oncology nurses. *Journal of Korean Oncology Nursing*. 3(1). 75-84. 2003.
- [36]E. H. Jo, J. L. Ryum S. H. Kim. The Effect of Nursing Students' Vocational Values on Major Commi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Nurse Imag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ursing Research*.5(2). 11-21. 2021.
- [37]J. H. Kim, H. J. Kim, E. Y. Park. The major selection experience of a nursing student whose mother is a nurs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ursing Education* 23(2). 194-204. 2017.
- [38]Y. D. Lee. Comparative analysis of occupational consciousness of Korean and Japanese college students. *Japanese culture study*. 18. pp. 159 - 173. 2006.
- [39]H. G. Jang. Economic and occupational values and professional ethic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Human Studies* 16. 7-40. 2009.
- [40]Hospital Nurses Association, Business report for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8. Seoul: Hospital Nurses Association, 2019.
- [41]Y. J. Song,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Ph.D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2013.
- [42]M. S. Jung.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empathy,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s for the reinforcement of communication skill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ursing Education* 20(2). 332-340. 2014.
- [43]Y. K. Huh. Changes i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Major-Job Match and Job Values. *Counseling Studies* 11(2). 721-738. 2010.